
기획논문

문헌과 출토자료를 통해 본 진사(秦史)

『사기』가 중국고대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또 중요한 자료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동시에 늘 그 사료적 가치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자료이기도 하다. 진(秦)제국의 분서(焚書)와 진한 교체기의 전란을 거치면서 많은 자료들이 소실되었을 뿐 아니라 사마천이 주요 사료로 참조한 『진기』(秦紀)도 진 왕실에 의해 재편집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사기』에 대한 사료비판의 필요성이 크다. 최근 고고학 발굴을 통해 무덤이나 유지와 같은 고고학 물질자료는 물론, 청화간(淸華簡) 『계년』(繫年)과 같은 출토 문헌도 대량으로 공개되고 있다. 이들 자료야말로 곧 『사기』의 사료적 가치를 검증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이다. 본 주제는 최근 출토자료가 진(秦) 지역에 집중된다는 점에 주목해, 『사기』 중의 진사(秦史)를 검토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사기』 사료비판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해 왔던 동아시아 3개국 한중일의 연구자가 모였다(일본학자 후지다 가츠히사(藤田勝久), 교수와 중국학자 리카이위엔(李開元) 교수 그리고 한국학자인 필자) 해외 학자가 참여하는 관계로 집담회는 세 차례에 걸쳐 국내외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진의 중심지역인 중국 감숙성과 섬서성 그리고 사천성 지역으로 답사를 떠나 직접 지리환경을 확인하고, 도성 및 묘장 유지와 유물을 보면서 『사기』 『진본기』 『진시황본기』의 내용을

되짚어 보기로 했다. 일단 첫 모임에서 각 연구자가 갖고 있는 생각과 연구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답사 계획에 대해 논의한 뒤, 2014년 8월 19일부터 27일까지 8박 9일에 걸쳐 답사를 진행하였다. 이때에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동양사학과와 대학원생도 함께 참여했다.

진의 역사는 대략 (1) 주(周)로부터 분봉을 받기 이전까지의 시기, (2) 춘추시대 서수(西垂, 지금의 禮縣)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시기, (3) 전국시대 중원 및 사천지역으로 확장해 갔던 시기, (4) 진시황의 통일제국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답사에서는 (1)과 관련하여 주로 농서(隴西)지역의 지리환경, 특히 농산에 의해 관중(關中)지역과 격절되어 있다는 점, 천수(天水)와 보계(寶鷄) 사이의 위하(渭河)가 매우 험하여 수운(水運)에 적절치 않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서주 시기 농서 지역의 주요 유적지로 알려진 모가평(毛家坪)과 동가평(董家坪) 유지를 답사하였다. (2)와 관련해서는 감숙성 예현의 대보자산(大堡子山), 서산(西山), 원정산(圓頂山) 유지, 그리고 장가천(張家川) 마가원(馬家塬) 유지, 춘추시대 덕공(德公)이 천도한 옹성(雍城)의 도성 유지 및 진공대묘(秦公大墓)를 답사하였다. (3)과 관련해서는 서한수(西漢水)를 따라 한중(漢中)으로 이어지는 교통로, 감숙 남부와 사천 서북부에 위치한 강족(羌族)의 문화와 진(秦)의 진출을 보여주는 청천(靑川) 학가평(郝家坪) 유지, 그리고 전국시대 농서지역으로부터 한중지역으로 연결되는 거점지로서의 방마탄(放馬灘) 유지 등을 답사하였다. (4)와 관련해서는 진시황의 첫 번째 순행 루트와 그 목표였던 예현의 란정산(鴛亭山) 제사 유지를 답사하였다.

이처럼 진의 초기 역사부터 진시황의 진제국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유적을 중심으로 답사를 진행하면서, 주변의 지리환경 및 고대의 교통로를 확인하는 작업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GPS, 구글지도의 위치와 역사지도와 문물지도를 번갈아 찾아가며 고대의 교통로를 찾아보려고 했다. 때로는 옛 길을 따라가려다 길이 무너져 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면서 깊고 험준한 오지까지 진의 세력이 침투해 들어가는 과정과 목적

을 생각해 보았고, 때로는 지도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도성의 입지조건을 확인할 수도 있었다.

세 명의 연구자는 전 여정에 걸쳐 끊임없이 상호간에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답사가 끝난 뒤 각자 자신의 관심과 느낌을 보태 논문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세 번째 모임에서 발표하였다. 모두 『사기』의 기록 및 출토자료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진의 역사를 복원하였다. 필자는 진의 초기 역사를 「계년」이라는 출토자료 검토를 통해, 후지타 교수는 전국시대 진의 역사를 청천현 목독과 방마탄 지도를 중심으로, 리카이위엔 교수는 진시황 제1차 순행을 예현의 유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세 편의 연구를 통해 진의 역사 전반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인문논총』에 신게 되었다. 글 속에는 함께 답사를 하고 또 많은 토론과 의견 교환을 거친 결과가 자연스럽게 녹아있지만, 여전히 각자 다른 의견이 표현되어 있다는 점도 부기해 둔다.

김병준

